

광주 교사들, 신학기 공문 폭탄 '발끈'

하루 4~5건 '긴급' '중요' 머릿글 달고 보고·제출 요구 일선 교사들 "눈코 뜰 새 없는 신학기인데 해도 너무해"

"3월, 제발 수업 좀 합시다."
신학기 광주지역 교사들이 '공문 폭탄'으로 목살을 앓고 있다.
새학기가 개학 하자마자 터진 미 세먼지 대란으로 '긴급' 공문이 쏟아지더니 이번에는 교육부 종합감사로 오전, 오후 할 것없이 '긴급제출' 공문이 밀려들면서 정작 수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교사인지, 행정실무사인지 헷갈린다"는 푸념도 나온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기 등을 고려해 신학기인 3월 감사(監査)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종합 감사(3월18~29일)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일선 학교에 전달된 자료제출 요구공문은 80여 건으로 하루 평균 4건이 넘는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무려 5건이다.

공문내용도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아 가뜰이나 신학기 업무로 눈 코 뜰 새 없는 교사들 입장에선 과도한 '업무 폭탄'이 아닐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감사이고, 누가 감사를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 울고 싶은 지경"이라는 불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신학기 일선 학교에선 수업과 생활 지도, 밀려드는 상담으로 분(分)단위로 시간을 쪼개 써도 부족할 만큼 경황이 없고, 교육청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3월 한 달을 '출장 없는 달'로 잡히기도 했다.

더구나 공문에는 한결같이 중요, 긴급제출이라는 머릿글이 달려 있다 보니 현장의 혼란과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있다.
한 교사는 "대체 무엇과 비교해서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건지 혼란스럽고 교실로 향하는 발목이 자꾸만 공문에 잡히기 일쑤"라며 "줄지어 '긴급'하다는 보고요구 공문은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존재하는지, 행정 업무를 위해 존재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교사는 "감사 두 번 했다간 학교 휴교하고 공문 보고만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동료 교사도 "공문 머릿글로 달려 있는 '긴급'이란 글자만 봐도 가슴이 뛰고 수업 시작장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에 성명을 통해 "3월에 진행되는 교육부 종합 감사는 학교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인 만큼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해 감사시기를 조절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예방 중심의 감사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자료도 미리미리 안내해 '중요' '긴급'을 요구했다."

또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예방 중심의 감사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자료도 미리미리 안내해 '중요' '긴급'을 요구했다."

급제출'과 같은 꼬리표를 단 공문으로 학교를 압박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문폭탄으로 교사를 수업이 아닌 행정실무자로 만드는 불심검문식 감사행정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는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조인호 기자



세계 각국 기자들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세계 각국 기자들이 28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분향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산림병해충 증가'...농경원 "사전 대응 강화해야"

기후변화로 산림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면서 발생 후 방제보다는 적극적인 사전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8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영향과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산림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방제성과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기후변화가 각 병해충별, 대상 수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모두 동일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방향성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인 기후변화로 병해충에 유리한 환경여건이 조성되고, 이런 환경에 병해충이 잘 적응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서식 적합지 확장에 따라 그동안 일부지역에 집중됐던 피해가 점차

전국 권역으로 확대될 수 있고, 새로운 기주(숙주) 수목의 피해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향후 겨울 기온이 상승할 것이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혹한 지역이나 고산지대 등에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역에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은 향후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부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2050년 이후에는 경북, 전남, 전북지역에서도 피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51~2070년에는 충남과 경기 지역까지 피해가 심화되고, 2090년 이후에는 강원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재선충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은 산림경영소속도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병해충 발생이 심해질 경우 산림경영에 따른 수익은 병해충이 없을 경우보다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방제를 한 경우보다 수익이 더 빠르게 하락했고,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안현진 부연구위원은 "그동안의 병해충 방제가 주로 발생 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불규칙적인 방제 성과를 초래했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에 의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손실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사후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사전대응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대응 강화조치로는 '중점관리대상 파악', '수목 건전성 제고', '수종 개발·교체를 통한 병해충 저항성 증진', '환경지불금 지급을 통한 외부성 제거' 등을 제시했다.

광주지검, 무자격 개인회생 브로커 구속기소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불구, 돈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처리한 법조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8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 총 3억6500만 원을 받고 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다른 법무사 명의를 이용,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회생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변조한 180여 건의 은행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서류 변조법을 추책하는 한편 이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

주춘경 기자

보건소서 전 아내 찌른 50대 자해...2명 숨져

화순군의 보건의소에서 50대 남성이 근무 중이던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자해해 2명 모두 숨졌다.

28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전남 화순군 북면 보건의소 진료실에서 A(52)씨가 자신의 전 아내이자 보건의 직원인 B(54·여)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 모두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보건의소 들어와 B씨를 찌렀으며, 이들이 진료실 문을 닫고 들어간 뒤 1~2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는 보건의 직원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지난달 이혼한 뒤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과거부터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어머니와 목욕 중 갓난아기 화상으로 숨져

생후 4개월 된 갓난아기가 어머니와 목욕 도중 화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구미시 옥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A(30·여)씨가 생후 4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버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 경찰관 폭행한 만취 20대 입건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23)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B경사의 목을 한 차례 때리고 C 경사의 머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 등은 신원을 확인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던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만취상태였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잠복 경찰에 '덜미'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달받아 조직에 건네려 한 혐의(사기)로 전달책 A(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다가 A씨를 불잡았다. 앞서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